제철 '감귤',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서늘한 곳에 신문지 덮어야

너무 건조하면 신선한 맛 빨리 없어져… 적정 수분 유지

찬바람이 불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과일은 바로 감귤이다. 가격이 비싼 타이벡 귤은 무엇인지, 위(胃)가 좋지 않은 사람은 귤을 먹어도 될지, 농촌진흥청(청장 박병홍) 감귤연구소에서 소비자가 궁금해하는 감귤 관련 상식을 짚어 봤다.

감귤을 주물러 먹으면 왜 단것처럼 느껴질까?

감귤을 손으로 주물러 먹는다고 했을 때 실제로 주무르는 시간은 아주 짧아서 이로 인해 특정 성분 변화가 일어나 맛의 차이를 낸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과학적으로 증명된 연구 결과도 없다.

다만, 사람은 체온에 가까울수록 단 맛을 느낀다. 귤을 손으로 만지다 보면 체온이 귤에 전달돼 귤이 미지근해지는데 이 때문에 귤이 좀 더 단 것처럼 느끼는 것이다.

과일과 채소는 껍질에 영양분이 많다고 하는데, 감귤 껍질에는 어떤 영양소가 있고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

감귤 껍질에는 비타민 시(C)가 풍부하게 들어있다. 또한, 모세혈관 강화작용, 항염증, 항균작용 등을 하는 비타민 피(P)의 하나인 헤스페리딘도 풍부하다.

감귤 껍질을 이용할 때는 물로 씻거나, 물에 식초나 소금, 중성세제를 넣어 세척하면 된다. 오염 물질이 염려된다면 유기농 감귤 재배 농장을 이용하는 것도 좋다.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은 감귤을 피하라고 하던데, 사실일까?

감귤은 다른 과일보다 새콤한 맛을 나타내는 구연산 함량이 높아 위가 좋지 않은 사람이나 임산부는 섭취할 때 주의하라는 이야기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감귤의 산 함량은 1% 내외로 위에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 다만, 개인마다 차이가 있으므로 감귤을 먹었을 때 속 쓰림이 느껴진다면 빈속에 섭취하는 것보다 식사 후 섭취할 것을 권한다.

일반 감귤보다 비싸게 팔리는 타이벡 귤은 무엇일까?

타이벡이란 물은 흡수되지 않고 공기는 통하는 기능성 피복 소재를 말한다. 감귤을 재배하는 토양에 타이벡을 씌워 재배하면 여름철 빗물이 토양으로 들어가지 못해 일반 감귤보다 당도 높은 귤을 생산할 수 있다.

최근 품질 좋은 감귤을 생산하기 위해 타이벡 재배 방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감귤연구소에서 타이백을 이용한 멀칭(바닥덮기) 연구를 진행한 결과, 적용하지 않은 것보다 감귤 착색이 빠르고 당도가 3브릭스(Brix) 이상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감귤을 신선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감귤 사이에 공간을 두어 공기가 통하게 한 다음 서늘하고 그늘진 곳에 보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습도가 너무 높은 경우에는 푸른곰팡이 등으로 부패가 발생하기 쉬우므로 환기를 해야 하고, 반대로 너무 건조하면 신선한 맛이 빨리 없어지기 때문에 신문지 등으로 덮어 적정 수분을 유지한다.

제주시 아라동에 사는 신인옥 씨는 "겨울 간식으로 귤을 자주 구매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귤에 대한 유익한 정보를 참고해 귤을 더 맛있게 즐기고 추운 겨울을 든든하게 보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감귤연구소 현재욱 소장은 "감귤은 어떤 과일보다 손쉽게 까먹을 수 있고 감기 예방 등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 면역력이 떨어지기 쉬운 계절, 맛있고 몸에 좋은 감귤로 건강을 챙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김영범씨와 회사 동료들이 7년째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한 뜻 깊은 연탄나눔에 나섰다. 〈사진=현대자동차 전주공장 제공〉

재능기부 연탄나눔 어느덧 7년째

현대차 전주공장 김영범씨, 목공예 제작 수제 우드펜 수익사업으로 연탄 나눔 나서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문정훈) 김영범(56)씨와 회사 동료들이 7년째 재능기부를 바탕으로 한 뜻 깊은 연탄나눔에 나섰다.

20일 이 회사가 밝힌 바에 따르면 목공예에 관심 많은 김 씨는 취미 삼아 시작한 수제 우드펜 만들기 재능을 활용해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이 맘 때 수익사업을 전개해 오고 있다.

동료 대의원들과 직원들, 그가 몸담은 낙사동호회 회원들이 적극 호응해 줬고, 특히 전주공고 동문들은 송년회비 등을 아껴 마련한 연탄 2천 장 분 성금을 보태 총 3천 장의 연탄을 전주연탄은행에 기부했다. 7년 간 누계 1만4,500장을 기부했다.

김 씨는 또 연탄이 있어도 산동네의 경우 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고 회사 동료들과 함께 전주시 교동 소재 자만벽화마을 일원에서 직접 배달 봉사를 전개하기도 했다.

현재 전북 지역에서는 현재 약 8천여 가구가 난방용으로 연탄을 사용 중이며, 배달조차 안 되는 고지대 거주 가구 등 가장 도움을 필요로 하는 세대들을 지원하는 데만도 최소 100만 장의 연탄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로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연탄나눔 참여자 수가 크게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고, 원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연탄값 인상으로 구매비용이 급증하면서 연탄나눔 사업 역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이에 따라 올해로 7년째인 김 씨 등의 재능기부 연탄나눔은 이 같은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데 큰 보탬이 되는 것은 물론, 연탄나눔 사업에 대한 보다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호응을 유도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완주=이중복 기자

전주상의, 신년인사회 취소… "코로나19 여파로"

매년 새해를 맞아 지역상공인, 지자체, 정치권, 기관단체장 등 사회 각계층 지도자들이 참석해 개최되던 전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가 2022년 새해에도 열리지 않는다.

전주상공회의소에 따르면 동절기를 맞아 오미크론 등 코로나19 확산세가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전라북도를 비롯한 방역당국의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취소를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전주상공회의소 신년인사회는 지역상공인과 각계 기관단체장, 언론인, 정치인, 사회단체 대표 등 500여명이 참석해 새해 덕담을 나누고 전북발전을 위한 새해 다짐을 갖는 행사로 신년 최대 행사다.

전주상공회의소 윤방섭 회장은 "매년 기업 대표자 및 도내 각급 지도자 5백여명이 참석하는 신년인사회가 2년째 취소되어 아쉽기는 하지만,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경제단체로서 지자체의 방역활동에 적극 협력하는 차원에서 결정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도민 모두의 적극적인 생활방역 수칙 준수를 통해 산업현장은 물론 우리의 모든 일상이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말했다.

/김윤상기자

북전주농협, NH-OIL 셀프주유소 개점

북전주농협(조합장 이우광)이 20일 전주 IC 부근 조촌교차로 옆에 NH-OIL 셀프 주유소를 개점했다.

주유소는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1144에 위치하며, 1,125㎡ 부지에 4복식 셀프 주유기 3조, 2복식 주유기 1조, 최신식 노브라쉬 셀프 자동세차기, 배달용 홈로리 2대 등을 갖추고 있으며, 주유소 내에 카센터도 입점해 있다.

그동안 북전주농협 조합원들은 농협에 주유소가 없어 면세유 등을 사용할 때 타 지역까지 가서 이용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북전주농협 주유소가 개점하게 되어 접근성도 용이하고, 가격 또한 저렴하게 운영될 것으로 보여 영농비 절감 등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우광 조합장은 "코로나 19 확산방지를 위해 별도의 개점식 행사 없이 개점을 하지만, 북전주농협과 조합원들의 숙원사업을 이루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김윤상 기자

'시보떡 돌리기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돼야'

LX 청렴확산협의체 비대면 회의서 제시돼

시보떡 등 답례품 관행과 상급자 경조사 챙기기 문화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LX한국국토정보공사(사장 김정렬·이하 LX공사)가 이어가고 있는 제4회 청렴확산협의체 비대면 회의(12월17일)에서 위원들은 '즐기로운 LX생활'을 주제로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조미숙 안성지사장, 장정아 부산울산지역본부 공간정보사업처 차장은 "지난 2월 공무원 사회에서 '시보떡' 관행이 논란되면서 공직 사회 전반에 이를 근절하는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다"면서 "상급자 경조사는 물론 육아휴직·출산휴가 등으로 제공되는 답례품 관행도 과감히 개선하여 새로운 조직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형식적인 회의문화를 지양하고 실질적 결과가 도출되는 건강한 회의문화로 만들어 나가자는 주장에도 힘이 실렸다.

박준철 서울지역본부 지적사업처 과장과 최태환 경기지역본부 운영지원처 주임은 "갑작스러운 회의, 일방적 의견 강요, 편중적인 발언권, 결론 없는 회의 등에 대한 불편·불만의 목소리가 높다"면서 "회의록을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공유하면서 건강한 회의문화로 개선해나가자"고 제안했다.

또한 이복형 과산증평지사 차장은 "조직의 추진방향과 중요사항을 공유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꼭 필요한 공문서만 만들어 피로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박종경 김해지사 차장은 "시간·비용을 감안해 당일 회의, 교육, 행사 등은 화상회의로 대체하는 방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잉 의전'을 없애고 본연의 일에 집중하자는 의견도 모두의 공감을 얻었다.

이현옥 강원지역본부 지적사업처 팀장은 "LX뿐만 아니라 상당수 공공기관들이 관례적으로 준비하는 각종 회의자료, 차량대기조, 회식 자리 배치 등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과잉 의전을 최소화하는 것만으로도 업무 효율화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수평적이고 상호 배려하는 조직문화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전기안전공사, 전주시로부터 '지역상생 우수' 단체 표창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박지현)가 20일, 전주시(시장 김승수)로부터 지역사회 상생을 위해 앞장서온 공로로 기관 단체표창을 받았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장애인을 특별 채용해 전기안전 문화공연단을 운영하며 지역 소재 유치원과 초등학교 등 28곳, 1,500여명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활동을 펼쳤다.

또한, 민간기업과의 '안심 캠페인' 협업을 통해 저소득 육아여성과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을 위한 생활(물티슈, 우유)·안전용품(멀티탭) 지원 사업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지난 11월에는 KB국민은행과 손잡고 동반성장 기금 3억원을 출연하는 등 지역 소상공인을 위한 상생협력 사업에도 힘을 보탰다. /김윤상 기자

전은 '챗봇 상담 서비스' 시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국)은 시간, 장소의 제약 없이 간편하게 상담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한다.

챗봇 상담 서비스는 전북은행 홈페이지와 모바일뱅킹, 모바일웹, 보이는 ARS 내 고객센터 및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JB전북은행'을 통해 이용하거나, 은행에서 고객에게 발송되는 각종 알림톡, SMS, LMS에 포함되는 챗봇 URL을 통해 이용 할 수 있다.

특히 챗봇 서비스는 별도의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이용 가능하며, 은행의 프로그램이나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고객들도 카카오톡을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손쉽고 편리한 상담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화 상담을 위한 대기시간 및 소요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챗봇 상담은 첫 화면에 제시된 ▲MY계좌 ▲MY카드 ▲MY대출 ▲증명서 발급 등 메뉴를 선택하여 예금계좌 거래내역, 대출 원리금, 카드청구내역 등의 조회 업무 및 각종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며, 직접 대화창에 단어 또는 문장형식으로 자유롭게 입력해 질문하여도 위치기반 영업점 정보 등의 기본적인 안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김윤상 기자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로 확보

도, 내년 우체국 쇼핑몰 입점기업 모집…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로

전북도가 사회적경제기업 온라인 판로 확보 및 매출 증대를 위해 '우체국 쇼핑몰 입점 기업'을 모집한다고 20일 밝혔다.

모집대상은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예산 소진시까지 상시 모집한다.

입점심사를 통과한 기업은 온라인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쿠폰비 일부 지원, ▲상품컨설팅 및 온라인 콘텐츠(촬영, 상품기술서) 제작, ▲우체국쇼핑 제휴 외부 판매채널(11번가 등)과 연계된 상품홍보, ▲특가 프로모션(슈퍼위클리, 쇼핑25시 등) 등을 지원받는다.

입점을 희망하는 기업은 신청서 등 필요서류를 준비해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이후 한국우편산업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입점 여부가 확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 누리집(www.jbsecoop.or.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도는 우체국 쇼핑몰에 '전북사회적경제기업 브랜드관'을 운영해 할인쿠폰 발행(10~20%)과 카카오톡, 11번가 등 제휴마켓과 연계한 제품 홍보로 2021년 11월말 기준 31억 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김용만 도 일자리경제본부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소비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온라인 유통시장 진출은 필수적이므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호상 기자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 코로나19 극복 성금 기탁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회장 양관식)는 20일 전북도청을 방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회원들이 모은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에는 신원식 정무부지사와 양관식 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장, 박용훈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는 올해 전북도를 포함해 10개 시·군에 총 5,400만 원 상당의 성금을 기탁 할 계획이다.

양관식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가는 날까지 협회는 지속적으로 나눔을 실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신원식 도 정무부지사는 "어려운 시기에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북도회의 온정이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라며 "기탁된 성금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전기공사업 유일의 법정단체로, 회원의 권익보호와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전기공사의 시공기술 개발을 통해 국가 전력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전북도회는 (재)전북전기공사업장학회를 설립해 전기관련학과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 등 전기공사 기술자 양성은 물론, 도내 청년실업 해소에도 힘쓰고 있다. /유호상 기자

남원원예농협, 남원시에 로컬푸드 상품권 기탁

남원원예농협(조합장 김용현)은 최근 남원시에 남원원예농협 로컬푸드 상품권 500만원을 기탁했다.

남원원예농협은 로컬푸드직매장, 농산물 공판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학교급식지원센터 등 지역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용현 조합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지역시민들이 추운 겨울을 건강하고 따뜻하게 보내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지역발전에 보탬이 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마스크 착용 '필수'·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